

경북도, 도서관위원회 회의 개최

남동락 기자 입력 2025. 12. 19. 13:29



[투어코리아=남동락 기자]경북도서관은 18일 경북도서관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상북도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설치한 법정위원회로, 광역대표도서관이자 지역의 공공도서관인 경북도서관의 정책 방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도서관계·학계·연구기관·장애인·아동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경북도서관 운영성과 보고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안건 처리 ▲공공도서관 운영평가 및 등록제 시행 관련 정책 현안 공유 ▲기타 광역대표도서관 업무 관련 자문 순으로 진행했다.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경북도서관은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내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 및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2026 경BOOK 페스티벌', '경BOOK 독서 127 캠페인', 도서관 주간(4월) 및 독서의 달(9월) 기념행사와 연계한 다양한 독서 체험활동,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도서관 운영 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